Fixed Income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의 나비 효과

- 프랑스 국가신용 등급 A+로 강등. 佛 금리 반등 여파로 독일, 영국도 올라
-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美 금리는 안정, 그러나 지금은 美 금리 불안
- 인하 사이클에도 경계 해야 할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및 국채 수급

Economist &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프랑스 신용등급 A+로 낮아지며 국채 금리 상승. 인근 국가들에도 영향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프랑스에 대한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함에 따라 글로벌 채권시장에서의 반응이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각)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단계 강등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피치는 "최근 프랑수아 바이루 전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으로 붕괴한 것은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정치적인 불안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등급 강등의 배경임을 밝혔다.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으로 프랑스 국채 10년 금리는 다시 3.5%를 상회했고,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프랑스와 같은 유로존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국채 금리도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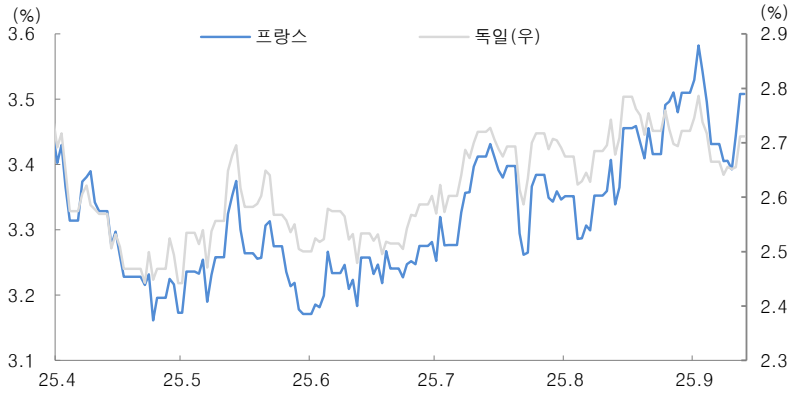
국가부채, 재정건전성 우려로 美에도 영향. 2012년과 다소 다른 전개 상황

당사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금리 상승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당 이슈가 프랑스 내부에 국한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같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로 확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채권시장 특히 국채의 경우 최근 시장금리 동향에 국가의 재정 여건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제히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을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급 부담으로 일컬어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프랑스와 독일 국채 10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제 미국 국채 금리의 경우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최근 수일간 비교적 가파른 하향 안정화 흐름을 나타낸 바 있는데, 이날 프랑스 발(發) 금리 상승의 여파로 금리가 반등했다.

국가부채, 재정건전성 및 채권시장의 관점에서는 채권 수급에 대한 부담이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결정만큼이나 민감하게 채권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동시에 2012년 소위 PIGS 국가들로 불리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금리 급등 국면에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부각되며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던 국면과 대비되는 대목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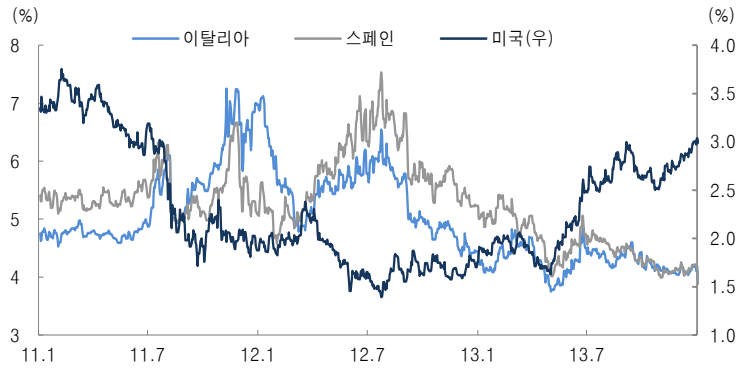
인하 재개로 美 금리 추세적 하향 안정화 전망 유효. 그러나 더딘 하락

당사는 미국의 경우 9월 FOMC를 기점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 역시 다시 추세적인 하향 안정화의 경로에 진입할 것이란 기존 뷰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미국 역시 재정과 국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과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될 때와 같이 가파르게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구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였다.

따라서 이번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다른 국채시장에서의 동요나 금리 반등은 미국 국채금리가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더라도 그 속도가 더딜 것이란 기존 전망을 강화하는 논거다.

그림 2. 2012년 유로존 위기 당시 이탈리아, 스페인과 미국 금리 동향



자료: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